

## 10. 추론과 가설

### 1. 추론의 정의

① 추리란 “주어진 정보” 이상으로 나아가 새로운 의미를 만드는 것이다. 관찰한 것을 기초로 확대시켜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을 말한다.

② 추론이란 추리보다 더 큰 개념으로 외현적으로 주어진 것(진술되는 것)과 관련하여 떠오르는(시사해 주는, 함의해 주는) 모든 것을 포괄하여 말한다.

\* 추론이라 함은 논리적 추론을 의미한다.

\* 사건, 사물들 사이의 관계를 규칙에 따라 추론해 나가고 결론에 이르게 하려는 강한 방향성을 갖는다.

\* 논리적 추론에는 강력한 방향성을 갖는다. 그래서 어떤 필연적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 추론은 두 가지 방향 중 어느 하나로 진행되는데 귀납적인 것과 연역적인 것이다.

\* 추론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일반화 추론이다. 우리는 일반화를 통하여 개념 형성을 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 ③ 일반화 추론

\* 어떤 형태 (패턴, 정형, 질서)를 나타내 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을 일반화라 한다.

\* 이러한 결론에서 다른 어떤 현상을 설명하거나 예측하는 일도 가능해 진다.

\* 관찰한 몇 가지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만들고 “형태”를 부여하는 것이다.

\* 관찰한 것들이 일관성을 갖는지, 지지적인 관찰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일반화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한다.

### ④ 일반화의 오류

\* 여러 경우들의 공통점을 추출해서 일반화하지 않고, 일부의 제한된 경우들만을 주목하여 그것들의 공통점을 추출해 모든 경우들이 다 그러한 속성을 갖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오류이다.

예1) 네가 제일 잘하는 국어 시험을 못 봤다고? 그럼, 다른 과목은 물어보나 마나겠네.

예2) 수학 선생님께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 친구가 풀었다. 따라서 내 친구는 틀림없이 수학을 수학 선생님보다도 더 잘 할 것이다.

예3) 송강 정철은 조선 시대에 가장 유명한 가사 작가이다. 그것도 모르는 걸 보면, 국문학에 대한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았구나.

예4) 지하철 속에서 검정 선글라스를 낀 장님에게 돈을 준 적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장님은 거짓으로 장님 행세를 할 뿐이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골목에서 만난 그 장님 선글라스도 끼지 않았을 뿐더러 두 눈을 뜨고 번듯이 잘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에 선글라스를 낀 모든 장님은 모두 가짜라는 생각이 미치자 적선해 주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들지 않았다.

- \* 하나를 보고 열을 판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능력이 몹시 뛰어난 사람을 지칭할 때의 애기고, 자칫 잘못했을 때 위와 같이 부분적 결과를 전체적 결과인 양 무리하게 규정하려는 오류[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성급한 판단은 금물
- \* 통계적 귀납 추론에서 자료가 불충분하면 성급한 일반화가 된다.

## 2. 함의의 언어 이해

① 단어의 지시적 의미와 함축적 의미

㉠ 지시적 의미: 지시적 의미란 그 단어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의미, 즉 국어 사전에 풀이된 의미를 말한다.

예)

- 꽃은 봄에 핀다.(식물의 번식 기관, 중심적 의미: 단어가 갖는 고유의 의미)
- 아버지께서는 즐겨 꽃을 가꾸신다.(꽃이 피는 식물, 문맥적 의미: 단어가 문맥 속에서 갖는 의미)

㉡ 함축적 의미: 함축적 의미는 지시적 의미 외에 더 첨가된 개인적 의미로 글쓰기가 만들어 낸 의미이다. 함축적 의미는 그 언어가 품기는 분위기, 암시, 연상, 상상적 의미 등을 다 포함한다.

예)

- 님이여, 당신은 의(義)가 무거웁고 황금(黃金)이 가벼운 것을 잘 아십니다. → 여기서 ‘황금’은 세속의 부귀 영화를 뜻하는 함축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② 단어의 축어적 의미와 비유적 의미

\* 축어적(逐語的) 의미는 문자 그대로의 사전적 의미이며, 비유적 의미는 주어진 단어가 그와 유추 관계에 있는 다른 대상을 나타낸 의미이다.

예)

- ‘익은 버가 고개를 숙인다.’

→ 축어적 의미: 잘 된 버가 그 무게 때문에 밑으로 눌어진다.

→ 비유적 의미: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한 자세를 갖는다.

③ 단어의 관용적 의미

\* 관용적 의미란 비유적 표현이나 어떠한 언어가 오랜 기간에 걸쳐 사용되어 오는 과정에서 굳어져 관습적으로 널리 쓰이는 말의 의미를 가리킨다. 따라서 관용적 의미는 주어진 단어들의 의미만으로는 전체 의미를 알 수 없다.

\* 우리말에서는 대체로 관용구나 속담, 한자성어 등이 이에 속한다.

㉠ 관용구: 하나의 의미를 나타내는 굳어진 단어의 결합이나 문장을 뜻한다.

예)

- 그 사람은 발이 넓다. → 사교적이어서 아는 사람이 많다.
- 신혼 살림에 깨가 쏟아지지요? → 행복하거나 만족한다.
- 통장에서 콧감 빼먹듯 하네요. → 너무 쉽게 돈을 써버리는 행동

㉡ 속담: 사람들의 오랜 생활 체험에서 얻어진 경험과 교훈을 간결하게 나타낸 구나 문장이다. 속담은 그 자체의 관용적 의미가 글 속에서 보조관념으로 쓰여 비유적 의미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예)

- 처음부터 그 놈의 인상이 무슨 말썽을 부릴 것 같더라니……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뽕난다고…… 그래 뭐라고 대답을 하셨죠? → ‘돼먹지 못한 사람이 건방지고 좋지 못한 짓을 한다.’는 관용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속담이다.

㉢ 고사성어: 한자의 글자 풀이로만은 뜻을 알 수가 없고 그 말이 생긴 유래를 알아야만 비로소 뜻을 알 수 있는 한자성어를 말한다. 즉 한자성어가 관용적으로 쓰여 특별한 뜻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예)

- ‘오월동주(吳越同舟)’ → ‘사이가 나쁜 사람끼리 행동을 같이 한다든지 자리를 같이 함’을 이르는 말이다.
- ‘와신상담’ → 자신의 목표를 위해 뼈를 깎는 고통과 불편을 감수함을 의미한다.

### 3. 논리 놀이, 추론 · 가설의 연습

① 가설이란 연구문제의 해결에 핵심이 되는 것으로, 실증적으로 확인해야 할 대상이고 구체적인 현상이 밀접한 관련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진실여부가 확인 되지 않은 사실이다.

② 좋은 가설의 요건

- \* 경험적 검증 가능성
- \* 타 가설이나 이론과의 높은 연관성
- \* 표현의 간단 명료성
- \* 연구문제의 해결 가능성
- \* 논리적 간결성

- \* 계량화 가능성
- \* 결과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
- \* 가설이 동의 반복적이 아니어야 함

#### <요리하기 놀이1>

- ① 전체 학급학생들에게 가장 맛있고 만들어보고 싶은 요리가 무엇인지를 물음
- ② 학생들이 가장 원하는 음식 하나를 선정하여 만들기를 할 것을 알림
- ③ 조원들에게 이 요리를 하기 위해 무슨 재료가 쓰일지를 협의하라고 함
- ④ 협의된 내용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가져 오라고 함
- ⑤ 재료를 조별로 사용하여 요리를 만들게 함
- ⑥ 그 맛이 어떨지 상의해서 발표하게 함
- ⑦ 다 만든 요리가 과연 그 맛인지를 발표하게 함
- ⑧ 만약 같다면, 만약 다르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토의하게 하고 발표를 함

#### <요리하기 놀이2>

- ① 조별로 요리책이나 레시피를 나누어 주고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요리를 조별 요리대회에서 한다고 고르게 한 뒤 그 맛을 그려보게 함
- ② 요리책 속의 음식을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재료를 보고는 어떤 맛이 날지 가설을 세워보게 함
- ③ 조원들이 원하는 맛은 어떤 것인지 토론하게 한 후 그러려면 요리책의 재료에 더하여 어떤 재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추론하게 함
- ④ 요리를 조원들이 협력하여 만들
- ⑤ 과연 그대로 맛이 나는지 비교해 보게 한 후 가설의 검증 완료함
- ⑥ 조원들의 가설 검증된 것을 가지고 발표를 통해 확인하고 다른 조의 피드백을 들음

#### ♣ 보충 학습

<주어진 문제의 함의된 내용과 속뜻을 지시적이며 축어적 의미로 바꾸어본 예>

- \* 이화여대에서 출제된 인문 계열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단계별 학습을 해 보자.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조기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컴퓨터가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인성(人性)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조기 교육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앞서가고 인간 능력을 조기 개발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컴퓨터 조기 교육에 대한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다른 쪽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논술하시오.

\* 위의 글을 좀더 세분화하는 분류작업을 해 보자. (분류의 중요성)

㉠정보화 시대에 컴퓨터는 모든 국가에서 중요한 도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컴퓨터에 대한 조기 교육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정책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컴퓨터가 상상력을 약화시키고 인성(人性)형성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에서의 컴퓨터 조기 교육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 나라에서는 세계화, 정보화의 추세에 앞서가고 인간 능력을 조기 개발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 ㉠에서 보듯, 이 문제는 ‘컴퓨터는 인간의 생활에 도움이 된다.’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출제된 것이다. 프랑스가 조기 교육을 반대하는 것은 교육의 시기를 늦추자는 것이지 컴퓨터 교육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컴퓨터는 인간성을 파괴할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여야 한다’는 식의 논지 추론 방식은 출제자가 요구하고 있는 방향과 거리가 멀어진다.

\* ㉡에서 제시한 것은 국가마다 그 정책이 다르다는 것이다.

\* ㉢의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논술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하다. ‘프랑스’는 예로서 제시된 것이며, ‘우리 나라’는 논어의 대상으로 제시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로서 제시된 프랑스의 조기 교육과 제재로서 제시된 우리 나라의 조기 교육을 대등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논어의 폭은 좁아지고 만다.

\* 이렇게 될 때 주어진 문제의 핵심과 전제를 분석한 뒤, 나름대로 주어진 문제를 다른 말로 바꾸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것이 제시된 문제를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중요한 작업이다. 이때 함의된 의미, 출제자의 속뜻이 전달되게 된다.

\* 위의 문제를 고쳐 보자.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일반적인 언어 사용 자세는 형식적이거나 때때로 비속어가 난무한 상태를 보여 주고 있다. 소수일지도 모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을 마구 해 버린다. 그러면 나중에 번복하든지 또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언어 사용의 상황은 결국 개개인의 성숙되지 못한 가치관에 그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결국 건전하지 못한 사고 방식이 사람의 말까지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건전하지 못한 사고 방식은 조기교육의 잘못된 출발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 여기까지 진행되면, 주어진 문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고 할 수 있다.